

포큐파인이란...

포큐파인은 여대생들에 대한, 여대생들을 위한,
여대생들에 의한 만화 잡지입니다.
아직은 부족한 시작이지만, 지켜봐주세요 *^^*



안녕하세요? 엘모예요 ㅎㅎ
저희 허접한 만화가 만민에게 공개된다니 쑥쓰려워 미처서 창 밖으로 뚫어내려
버릴 것만 같네요. 다음엔 더욱 발전하는 엘모가 되길 바라며~
포큐파인을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구요, 다음 호도 읽어주셨으면~ 하하
더 볼말이 없어서 뽀이뽀이뽀이
신입 들어왔으면 좋겠다.. 하하..



유자예요.
그냥 속닥속닥하는 불의 기분으로 그런...던거 같지는 않구요,
다음호에는 좀 더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고 스스로에게 바랍니다 ㅜㅜ;;
읽어주시는 여러분, 기억해주시는 여러분 모두... 지원하세요, 문은 열려있다!
우리는 무서운 사람들 아니예요, 해치치않아요, 오덕도 아녀 ㅜㅜ 만만하다는..
수업과 동아리와 반과 과 생활에 위해를 가하지 않아요, 진짜예요! ㅎㅎ



안녕하세요 을무입니다. 이렇게 포큐파인 창간호가 나오다니 뿌듯하군요.
사실 유자 엘모 저는 호의화했다고 모의하고 잡담, 수다만 붙여놓고 맛난거
먹으러 가고 친목만 다진 것 같습니다.(8월은 수다과 2월정도가 호의화...;))
"학교 이야기를 세보자!" 하고서 아이디어가 아닌 자기 학교생활 이야기를
주절주절 물어놓는 식이었을까요? ㅎㅎ 저희가 나눈 수많은 이야기와 만나는
느낌들은 이 잡지에서실론의 일도 못 물어놓은 것 같습니다. (저러이유가
있었지만 그 모든 이야기를 이걸 읽어주신 분들과 공유하지 못해서 아쉽군요)
포큐파인 어때셨나요? 앞으로는 우리만의 독특한 색깔로 세상을 그려보겠습니다.
당신에게는 어떤 색깔인가요?

포큐파인에서 새 멤버를
모집하고 있어요!



그림은 못 그려도 상관없어요!



엘모 010 5104 8929
jainthee@naver.com
문자나 메일주세요♡



그냥 별 생각없이 만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어떤 여대생들
의 목닥거리는 이야기. 어느날 갑자기 팡팡팡팡~ 하는 잡지가
만들어보고 싶어진 애들끼리 야! 두달간 음모를 꾸미다가
결성, 달랑 셋이서 ^{창간호} **포큐 파인** ^{업은 실력으로 무}
좀 그려보겠다고 ^{공공거리고 있네}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이 혹시 또 (!)}
있다면 지면 **Porcupine** ^{어딘가에 우리}
연락처가 있을 ^{거예요. 펄펄!}
아 근데 왜 이름이 '안하' ^{잡지} **포큐파인** 이냐구,
따끔따끔 가시 세우고 ^{날카롭게 사는}
사람들? 니 그런 ^{깊은 뜻 없어요.}
생각없이 그냥 ^{골라보았어요}
이름 고민만 ^{한달쯤 하다가}
답답해서 아무 책이나 펄펄했는데 눈에 띄어서 골랐어요. '포큐파인?'
검색해보니 '산마치광이' '호지' 라요. 뭐 고등도치 이런 거라갈래.. 책이
막 고른건데요. 뭐. 이름 같은게 중요하구요,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가 훨씬
중요한거죠. 이번 호 이야기는 여대생다운 윗차림, 통금과 술자리,
사람들과 친해지는 여러가지 방식, 여휴(여학생 휴게실) 들여다
보기, 게스트페이지, 또.. 만화 좋아하는 사람들이라보니 볼만한 만화책
얘기.. 예, 또.. 아. 가버렸다 사실 원고 나옴전에 표지 쓰는거라.
무슨 이야기들이 있나 내용은 당신의 눈으로 확인하시길! :D



이런 여대생을 상상하시나요?



① 굵은 웨이브

: 생머리는 잘리고 짧은 머리는 남자들이 싫어할 것 같고... 여대생이 역시 여신 같은 웨이브 머리~

② 화장

: 중고등학교 시절에는 금지되었던 화장! 샤랄라하게 모공을 막아주면 왠지 어른이 된 느낌이 들죠~

③ 액세서리

: 대학생이 되었으니 귀도 뚫고,blingbling한 귀걸이/반지/목걸이 등 액세서리의 세계로~!

④ 명품 가방

: 너는 대학생이 되어서도 키*링, 레스*삭이나 갖고 다니니? 이제 어련애 같은 가방은 노노! 명품으로 나 자신을 뽐내보아요!

⑤ 원피스

: 청순한 여대생의 이미지 완성품! 사랑살랑한 옷자락에 내 마음도 두근두근~

⑥ 레깅스

: 진짜 패션을 아는 사람의 필수품은 역시 레깅스~ 레깅스 정도는 거뜬히 소화해야 쉬크한 여대생 아니겠니??

⑦ 하이힐

: 어른의 세계에 들어온 이상 아찔한 하이힐은 필수지~ 아파도 아파도 인내할 줄 알아야 진정한 어른!

※ 주: 위 이미지는 흔히들 생각하는 여대생의 이미지입니다.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나요?나만의 스타일과 개성이 살아있는 여대생이 되어보는 건 어떨까요? ☺

관계, 친밀함에 대한 고찰

새학기가 찾아왔습니다. 캠퍼스는 새내기들로 우글우글, 복학생들도 우글우글, 보던 사람들도 우글우글.. 친해지고 싶다! 누구와? 어떻게? 조금해하지 말고 나의 성향에 따라, 상대방의 성향에 따라, 경우에 따라 각각의 관계에서 친해지는 법은 다를 수 있겠죠. 여대생의 관계맺기, 그 많은 이야기들 중에 다섯가지를 살포시 꺼내봅니다. 당신도.. 이런 친구 있겠죠?



과방/동방 문을 벌컥/하고 열고 들어와서 "애들아 밥먹으러 가자!!"고 소리칠 법한 친구. 명랑쾌활해서 어디 뉘둬도 사람 사는 곳이면 잘 살 거 같다. 분위기 메이커에 마당발. 주변 사람들에게도 인기만점. 그래서 반이나 동아리에서도 적응을 참 잘한다. 새내기 때 특히 이런 친구들이 부럽다. (그러나 너무 부러워할 필요 없다. 관계는 '유지'다!)



길가는 사람 돌아보게 만드는 외모!! 가만있어도 사람들이 주변에 북적북적. 이런 사람이 새내기라면 밥 먹자, 밥 사주겠다 특히 남자 동기나 선배들의 공세가 장난이 아니다. 딱히 잘난 척을 한다거나 하지 않는 이상, 여자 친구들도 많다. 다만 연애를 시작하면 '누구꺼'라고 적혀서 공동체 생활 판도가 조금 바뀐다. 특히 깨질 경우...ㅠ



급친. 생각지도 못하게 무슨 이야기를 하다가 서로의 관심사와 취향이 매우 잘 맞는다는 것을 알고는 갑자기 친해지는 경우다. 자주 만나게 되고, 단짝친구가 되는 경우가 많다. 뭘 해도 재밌기 때문에 같이 있으면 시간이 금방 가고, 취향이 비슷해서 상대방의 친구가 내 친구가 되는 등, 인간관계가 금새 넓어지기도 한다.



위의 친구들이 초반에 빨리 친해지는 친구들이라면, 자주 보게 되어서 자연스럽게 친해지는 경우도 있다. 과나 반, 동아리 생활을 같이 하거나 수업을 같이 듣는다. 잘 생각해 보면 애인이나 가족들보다도 같이 지내는 시간이 더 길다. 특별한 추억을 많이 공유하고 있을수도 있고, 딱히 그런 건 없지만 일상적으로 서로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사이일지도.



오랜만에 봤는데도 마치 어제 보 것 같은 친구다. 초중고 동창들 중에 간혹 이런 경우가 있다. 정말 오랜만에 봤는데 어색하거나 반갑기는커녕 그냥 어제 또 만나서 같이 놀았던 거 같은 익숙한 기분이 드는 친구가 있다. 대학 친구들 중에도 오랜만에 봐도 좋은 정겨운 사이가 있다.

(유자가 그리고, 썼어요) ☺

대학 생활에 있어서
나에게 가장 힘든 것은
술자리였다.

보송보송
제 1화: 1을 만나다 by 엘로

저 술 잘 못
마셔요. 반만
주해요.

괜찮아. 그냥 마셔

어-유리왔니

안 꺼자니 사람 사귀기 힘들
고 꺼자니 적응하기 힘들었
다. 재임을 못하는 나는 연
달라 별주를 마시곤 했고,
술 취한 분위기는 나를 힘
들게 했다. 술자리에 참석
할 때마다 소외되는 느낌
이었다.

!! 마저!! 마저!!
아하하-

아! 누구지??

방금 전까지
없었는데!
못 보던 얼굴인데
너도 새내기니?
한잔 하렴.
그것이 그와 나의 만남
이었다.

부들
부들

여섯 살때의 일이었어요.
저는 나폴리의 아름다운 해변에서
다섯 살 때 선물 받은 조랑말
이동로와 놀고 있었는데?
한때 누나의 사촌의 사촌의
할아버지 해프만이 마시라면서
75년산 와인을 주시 댔어요.
순진한 난 북마른 하이패나가
눈두덩에 취어들 듯이 뽀뽀
직 들어갔는데 그 안에 무언가
독이 들어간 게 아닐까 싶어 보니
참아빠지 눈물 두 개 참
것만 한 지렁이시 댔어요! 그
뒤로 할아버지께 안 마시라
이 말씀 하셨던 것이 허 주변을
돌아요.

그날 한잔만 하면
안될까?
아아아-
물라요-
지렁이
냄새
식혀시켜
난 못 마시
질질질

그럼 게임
이라도...
아악-
안돼요-
게임이라
유머가
있어 말해요
12살 때 모나
로 친한 쌍둥
자-해서-와
-을-하다가
-!!!!

아이참!
발피 9시네요~
피부관리를 위해
일찍 자뉼야 해요.
아~ 밤잠 혼자 가
무서운데~ 같이
갈 사람~

카아- 아무도
없는거야?
창문 열어
내게 밤잠에...
불끄세요...

없어...
이것아...

우와 엄청 이상한 애다. 어디서
뛰어나온 거지? 못이람 머리도
회한하고... 특이하지만 나쁜 애
아닌 것 같아. 이런 어찌면
술자리에서 자연스럽게 벗어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일 지도
몰라!

!!
저기... 같이
갈래?

반가워!
난 샤방아방뽀송
이라고 해
난 유리야.
그게 진짜 이름
아니었지?

그 날 나는 술자리에서 술치 보지 않고도
집에 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다 샤방아방
뽀송군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다음 화에 계속~

정오유 (의)
다하이유기

- 엄마와 딸은
달라??? ㅎ-

by 田中 

술자리백사(죽림의백사)는 12시 이후에 쓰여진다...? = 0 =



- ① 키 커보이는 게 좋아!(날씬해 보이기도 하고)
- ② 또각또각 다리에 긴장감이 좋아서~
- ③ 매장에 이쁜 것들은 다 하이힐이잖오~
- ④ 어른스러워 보이고 싶어서.
- ⑤ 남들 다 신으니까!(나만 작아보일 순없다!)



·하이힐 대처법 ??!

·상황 1. 하이힐을 신고 '삐끗' 넘어졌을 때

또각또각 걸을 때는 도도함과 세련됨을 뽐낼수 있지만
넘어지면 (중심이 앞으로 쏠렸기에) 절대 물이 나지 않
는다. 뒤에서 보면--(아는 사람은 다 알다)
일단 넘어지면 그자리에서 바로 일어서지 말고 나를
보았던 사람들이 좀 지나가길 기다렸다가 빨개진 얼굴
을 수습하고 (아무일 없었다는 듯이 걸으면 웃기니까)
이따가거 별거 아니야 라는 표정으로 다시 걸어간다.

상황 2. 추방관 선덕이나 이과대 앞 선덕에서 내려가다가 구두굽이 나갔을 때
일단 엄청난 추유증을 동반한다. 앞으로 넘어지거나 뒤로 엉덩방아를 찢는다거나—
그리때 일단 그자리에서 꼼짝않고 있다 최대한 사람들의 시선을 끌지 않도록 한 다음에 날아간 구두굽을 줍는다.

혹시 누군가 친절함을 발휘한답시고 구두감을 주워주면 눈을 마주치지 않고 감사의 말과 함께 재빨리 사라지는게 상책이다. 한쪽 굼만이 부러졌다면 영화에서처럼 쿵-하게 다음쪽 굼도 내려쳐 부러뜨리는 것도 시도해 볼만하다. 그럴 용기가 나지 않는다면 한쪽발은 마치 발을 한 채 구두감을 쥐고 최대한 빠르게 학관 구두생으로 이동한다.

(위면 눈에 뿔뿔말 아니라 품도 이상하니까) 참고: 경
보 혹은 무술을 익혔다면 축지법 경공법을 이용할것을
원한다.

또 화장 대처법

1. 화장을 지우고 민낯으로 다닌다.
주위 낙후된들로부터 "예기가 없다"
"얼굴에 자신있냐"라는 별소리가
뒤따르는 방법이지만

"네얼굴이 더 예뻐졌거든? 너도
내일부터 화장하고 라라~" 라며
직접 락온데이션을 발라주려 하
면 대부분은 도망갈 것이다.

2. "어제 섭위한 다량의 에탄올이 피하에 남아서 스킨의 텍스처에탄올과 오이스처오션의 파라운 신탈엑스텐이 반응을 해서 파운데이션과 파우더의 비리리 성분과 주전구점"로 시작하는 일반인은 알아듣기 힘든 전문용어를 사용하여 사람들의 입을 막는다

by. 會 四 山

포큐파인이 추천하는 만화이야기!!!

十二國記십이국기 (애니메이션) -오노 후유미 원작- ..음무 choice!

"여자는 안전하고 시집 잘 가는게 제일이야" 라는 가부장적인 아버지와 마음 약하고 순종적인 어머니, 선생님과 친구들 사이에서 모두에게 착한 아이로 여겨지고 싶었던 평범한 여고생 요코가 주인공이야. 그녀는 마음받는 것을 두려워하여 착한하iero 남고자 남의 평가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보기에 답답한 성격이지만 그녀에게 공감해버리는 나 자신 발견하게 되었어. 그런 요코가 다른세계에 떨어지면서 자신의 내면과 주위관계를 다시 돌아보게 되는 이야기야. (-~)



이 만화에는 그 흔하지 않은 버브라인이 없어. (설마 실망?) 그 대신 요코와 반인반수 라크존과의 신뢰관계는 제 1편인 달의그림자 그림자의 바다에서 가장 관심이 쏠리는 테마였지. 그리고 요코이야기의 2편격인 바람의 만리 여명의 하늘에서는 세소녀의 운명이 서로 얽히면서 만들어져가는 애증, 성찰, 우정 이야기가 참 좋았어.

'여왕'이라고 한숨짓는 제후제관들 속에서 눈치를 보고, 한정된 예산으로 도시경비나 치수나를 선택해야하는 상황과 신하들의 정권다툼이 엮이는 상황 속에서 우왕좌왕하는 요코, 방국의 시역된 왕의 딸이며 자신의 상황을 이해하지 못해 괴로워하는 소우케이, 제국 비선 취미군의 하나로 구박받다 탈출한 해적 스즈. 그 소녀들이 경국에서 일어난 반란의 소용돌이에 휩싸이면서 각자의 정의감과 가치관이 일대 격변을 겪게 되는데, 뒷이야기가 너무 궁금해서 보는자리에서 골짜지 보게 만들만큼 흥미진진했어.

주인공이 여자인 만화(특히 여고생)에서는 그녀의 주된 이야기이자 삶의 방향은 '사랑'이지만 여기에서는 왕으로서의 길에 대한 책임감, 자아성찰, 신뢰관계, 우정, 국가관의 정립이라는 한 인간의 성장에 대한 이야기이어서 신선하고, 의미가 크다고 생각해~:)

<사랑해야 하는 딸들> by 쇼시나가 후미 ..음무 choice!

딸 유키코는 엄마 마리와 동거하는 평범한 직장인이었다. 그런데 어느 날 엄마에게 애인이 생겼다! 그것도 딸보다 어린 전직 포스트였던 남자와 말이다. 그 어리고 젊어서 보이는 남자애는 한 모녀와 한 지붕 아래서 살게 되고, 유키코는 엄마가 목욕할 때마다 따라 들어가는 그의 모습에 망연자실해 한다. 유키코는 자기 멋대로 이런 엄청난 일을 저지른 엄마에게 서운해하고 거이없어 하지만, 결국 엄마에게도 엄마로서의 인생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마리아에게서 독립한다.

<사랑해야 하는 딸들>은 이렇게 다소 '이기적'인 그녀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자기 인생이 찾고 싶다며 늦은 나이에 애인과 동거하는 마리아의 모습, 가사를 '돕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애인에 대해 불만을 느끼는 유키코, 평범하게 결혼하며 살아가기엔 자신이 가진 사랑이 너무 크다고 느끼는 유키코의 친구 등등...

다른 사람에게 비난 받는 것에 개의치 않고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그녀들의 모습은 정말 사랑스러워 보인다. 다가오는 봄, 사랑스러운 딸들을 펼쳐보는 것은 어떨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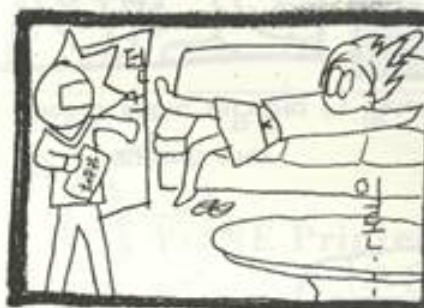


여후파인

by.음무 ☺

♥ 당신과 당신의 친구의 모습을 찾아주세요 ♥

1. 갑자기 생리시작이네~ 오늘 하필 미니스커트.. 핫팩 붙이고 편히 누워 있을만한 데 없나?
2. 하이힐 신고 하루 종일 돌아다녔더니 발 아퍼. 아무데서나 앉아서 발 주무를 수도 없궁~
3. 아함~ 한숨 자고 났더니 머리 돌리고 뒀는데 침자국이라니, 여기 반방 아니라 다행이군. (아는 사람 없지?) 뱃살보이는 거 신경 안 쓰고 기지개 펼 수 있어 좋다. 80^
4. 밥을 입어서 그런지 도서관에서 책볼 때 가슴선 보일파봐 신경 쓰여. 여기는 그래도 괜찮은 거 같아.
5. 나도 이제 고학번이고 동방 나가기에 별종하구. 예휴 또 점심시간이네~ 일일이 친구랑 시간 맞추는 것도 이제 힘들고 어디 맘편히 조용하게 커피랑 빵먹을 만한 데 어디 없남.
6. 공강시간에 할 일없을 때 가끔 와서 앉아서 음악 듣고 친구랑 얘기하는 게 좋아 >_<



경험1)

한산한 평일 저녁 반방에 아무도 없어서 발 뻗고 누워있는데, 갑자기 천단치 아저씨가 들어와서 잠 좀!!! 민망하게 다리뻗린채인데 네 보이고 (T.T) 아이구아 이런-..

경험2)

-여자분들 미니스커트 입고 중도 오지 말아주세요

신경쓰여서 공부에 집중이 안돼요-

허걱! 보고 있었던 게나...! 내가 너 보라고 치마 입는 줄 아는게냐? (너땀에 내가 더 신경쓰인다규++) 고등학교 때는 근처 남학생들을 자극한다고 교복 안에 끈나시 못 입게 했는데 대학에서도 안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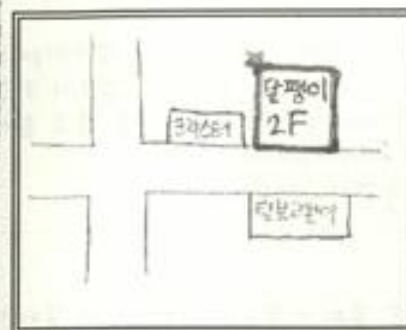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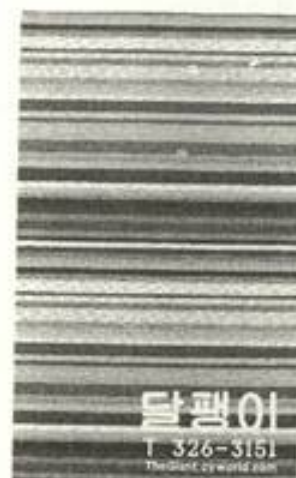
빛나는 게스트 코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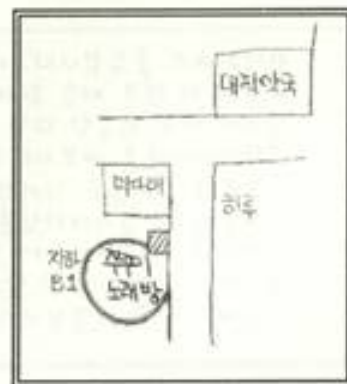
파니(파이팅) 니 마음(님)이 기고해 표했어요~
파니 고마워요~



포유파인에 게스트 코너에서는 여러분들 만화/일러스트 등등을 기다립니다!
못 그려도 상관없어요!
넌들 뭐 잘 그리나요 ㅎㅎㅎㅎ
그냥 "이런 걸 그려보고 싶다"라는 생각 하나면 돼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jainhee@naver.com으로 보내주세요



기본 연주 2가지
서비스 연주 2가지
텔보고되어 건너편 2층
T. 02) 326-3151



120-835 서울시 서대문구 창천동 89-38
Tel_02.322.2700~1 Fax_02.3141.3300
http://www.yon2.co.kr E-mail_yon@yon2.co.kr



- 후원해 주신 "달팽이" "푸꾸미 노래연습장" "연이문화사" 에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